



宗訓

1. 崇祖 精神의 高揚
2. 宗族 和睦의 勵行
3. 國家社會에 貢獻

順天金氏中央宗親會

# 順天金氏宗報

제 57 호 2008. 8. 20 (수)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 발행인 : 김종식/ 편집인 : 김봉환/ http://www.schkim.co.kr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新和SILK빌딩 2층/전화 : (02)400-2501~2502/FAX : (02)400-2505

順天金門의 後裔들 전통보학 학습으로 三伏더위를 쫓는다.

## 제23회 대학생 하계교양 강좌



순천김씨 중앙종친회는 제23회 대학생 하계 교양강좌를 2008년 8월 4일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소재 시조 묘역 가락당 대강당에서 전국지역 종친회와 파종회에서 추천받은 대학생들이 순천 김문의 전통보학교육을 받기 위하여 입소하였다.

이날 입소식에는 鍾植 중앙종친회 회장을

비롯하여 회장단과 고문 및 원로 종친 그리고 지역종친회와 파종회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교수단으로는 承淵 한밭대 교수(종친회 주임교수)를 비롯한 종친회 교수들과 최인선(순천대 사학과) 교수 등 외부 초빙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입소식을 거행하였다.

특히 이번 교양강좌에는 鍾淑(전.하이얏트클럽회장)종친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와 헌성금을 쾌척하였다.



중앙종친회 회장의 환영사



최인선(순천대 사학과) 초빙교수

## 상의원공파 침추(僉樞) 공묘 개봉영

상의원공(尙衣院公)의 6세 손이신 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휘 장하(鼎夏)공의 분묘가 안성시 보개면 적가리에 소재한다. 초장모신지 근 300년(수차사초)이 지난 오늘날 퇴락하여 그 후 혼들 민구히 지내오다 지난 7월초 후손들 정성을 모아 위와 같이 개봉영하고 추모의 묘갈까지 세워 위와 위와같이같이 일신하게 었다.





# 제416주기 팔천고혼 위령제 순천김문 鍾植 중앙종친회 회장 참례

2008년 6월 1일 충주문화원이 주최하고 충주시, 육군 제3105부대, 충주교육청, 충주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제416주기 팔천고혼위령제가 충주 탄금대 팔천고혼위령탑 주변 및 탄금대 일원에서 종식 중앙종친회 회장을 비롯하여 충주시장, 충주시의회위원장, 국회의원, 충주보훈지청장, 충주교육청교육장, 육군3105부대장, 충주경찰서장, 평산신씨 대종회장, 충북도의회의장, 충주문화원장등 내외 귀빈이 문집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하였다.

팔천의군은 조선선조 25년 4월 일본이 21만명의 병력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동래성을 함락하고 상주를 점령한 일본군이 문경 조령고개를 넘어 노도처럼 북진하자 신립장군과 김여물 부장은 8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여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져 산화한 세계 전사상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처절한 玉碎作戰을 감행한 전투이다.

조총과 같은 신무기와 조련된 군사력 앞에 위국과 충절의 단심만으로 대항하여 조선군의 용맹은 하늘을 찔렀고 검붉은 피는 남한강과 달래강을 붉게 물들였다.

순천김문 후손들은 김여물 선조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종식 중앙종친회 회장을 비롯하여 참연고문 경남감사 봉환 간사장 등 많은 종친들이 참여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엄숙히 헌작하였다.



헌작하는 종식 중앙종친회 회장

## 북저공 실기를 간행하면서



날씨는 예년에 없던 흑서의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친애하는 모든 종친들께서는 어찌 견디어 내시고 계신지요. 모쪼록 가내 제절이 평안하시고 제반사가 순조로

우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 월담선생실기(月潭先生實紀)에 이은 북저선생실기(北渚先生實紀)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임진왜란시 장렬하게 순국하신 장의공(壯毅公)의 외 아드님으로 향리 안산에서 태어나시어 향시(鄉試)에 장원하시고 음사로 입사(入仕)하시어 대과(大科)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하시니 중신들이 모두 아껴 주었다고 합니다.

벼슬길의 공께서는 남들이 두려워서 바른말을 못할 때 의연하게 소차(疏筭)하시는 등 울곧은 길을 사셨으며 강상(綱常)이 무너지고 정사(政事)는 혼돈에 빠지는 사태에 이르니 중신들과 협모하여 인조반정(仁祖反正)을 주도하시어 대업을 이루셨고 이괄(李适)의 난 또는 심기원(沈器遠)의 난에 슬기롭게 대처하시었으며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공을 세우셨습니다. 병사(兵事)에도 밝으시어 수차례의 체찰사(體察使)의 직을 받으시고 외직으로 나가시어 민정(民政)과 국방에도 크게 공헌하셨지요. 그리하여 두번의 원훈공신(元勳功臣)이요 양관(兩館)의 대제학 세 차례의 영의정을 지내셨지요.

위와 같이 화려한 환로(宦路)이셨지만 그 이면에는 쓰라린 고

난(苦難)도 따랐으니 병자호란시는 영상(領相)으로서 화의(和議)를 위한 뒤 수습으로 그 얼마나 고난을 겪으셨던가. 간원(諫院)의 끈질긴 상소(上疏)로 삭탈관직(削奪官職)-(얼마 후 복관)을 당하기도 하였고 정경부인 柳씨 등 四世(世) 부녀자 가솔이 일시에 순절하시고 독자인 순흥군(順興君)이 실책 있어 사사(賜死)되는 등의 흉사를 겪으셨으니 그 비통함 어찌 헤아릴 수 있으셨겠습니까.

공의 높으신 학문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이며 특히 이율곡(李栗谷), 성우계(成牛溪)선생 계렬을 이으셨다 하며 그 이념을 정사(政事)에 반영코저 하신 흔적을 이 책에서 쉽게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1,000페이지가 넘는 책으로 첫 머리에 공의 영정 등 사진자료를 실었고 예에 따라 간행사와 서문 등을 실었으며 다음에 발췌한 실록문과 그 원문을 실었으며 뒤에는 부록으로 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의 가장(家狀)과 행적(行蹟) 그리고 공의 신도비명을 실고 끝에 공의 세계표를 달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책은 공의 다단(多端)했던 50년 벼슬길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지만 충(忠)과 의(義)를 본령으로 사시면서 그 얼마나 많은 곡절을 겪으셨는가를 알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학문에 전심하시고 절조(節操)의 삶을 사셨음을 미루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는 이 한권의 책을 많이 읽어 공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흠모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책을 간행함에 있어 서문을 주신 단국대학교 부총장 김상홍 박사님과 축하의 글을 보내주신 김종숙여사님, 김석연사장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분망하신 중에도 이 일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정광순 선생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08년 8월 일

중앙종친회 회장 김종식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 우연히 함께 일어나서 마치 서로 관계된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될 때 흔히 오비이락(鳥飛梨落)이라고 한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다. 어쩌면 이 말은 그저 우연히 겹쳐 관히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단순한 교훈에 그칠 수 있다. 그런데 이 속담은 잘 알려지지 않는 재미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오비이락 파사두(鳥飛梨落 破已頭)가 그것이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지고 그 아래에 있던 뱀의 머리가 깨져 죽었다.

“오비이락 파사두야”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진다. 떨어진 배에 맞아 죽게 된 뱀은 다음생에 멧돼지로 태어난다. 그리고 배나무에 앉아 있던 까마귀는 꿩이 되었다. 어느날 꿩이 양지쪽에 앉아 있었다. 그때 산비탈을 지나던 멧돼지의 발에 부딪혀 돌이 하나 튀게 된다.

그 돌은 날아가서 앉아 있던 꿩의 머리를 맞혀 죽이고 만다. 애초에 까마귀에 의해 죽음을 당했던 뱀이 다시 멧돼지로 환생하여 까마귀가 죽어서 된 꿩을 다시 죽이게 된 것이다. 꿩은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 사냥꾼이 되었다. 이 사냥꾼은 어느날 산에서 우연히 멧돼지를 만나게 되었다. 사냥꾼이 그 멧돼지를 활로 쏘려고 하니 그 멧돼지는 마침 근처에 있던 암자로 숨어들었다. 그 암자에는 지혜의 눈이 열린 도인 스님이 살고 있었다. 이 도인은 신통력으로 그 사냥꾼과 멧돼지 사이의 죽고 죽이는 과거의 원한 관계를 볼 수 있었다.

스님은 사냥꾼에게 멧돼지를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서로의 원한 관계를 설명해 주었다. 사냥꾼은 그 자리에서 활과 화살을 켜는다. 과거의 악연을 끊고 더 이상 살생의 업을 짓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마침내 까마귀와 뱀의 원한 관계가 해소된다.

이야기가 조금 심각하고 복잡해 졌다. 원래의 속담이 가진 뜻과 같이 까마귀는 뱀을 죽이려는 의도도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까마귀는 뱀이 그 배나무 아래 있었는지조차 몰랐을 것이다. 더 나아가 까마귀가 날아가는 바람에 배가 떨어졌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다. 그런데 까마귀가 날아가자 배가 떨어졌고 그 배에 맞아 뱀이 죽고 만다. 이 한번의 우연이 3생의 유희를 통해 죽고 죽이는 악연으로 계속된다. 도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들의 나쁜 속명은 얼마나 더 이어졌을지 모른다.

우연으로 맺어진 나쁜 인연조차 이렇게 집요하고 질긴데 일부로 의도를 갖고 한 일에 대한 과보는 말할 것도 없이 크고 무겁다. 옛 노승들은 육환장이라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다. 지팡이 끝에 동근 쇠고리가 여섯개 달린 것으로 땅을 짚을 때 짚랑거리는 소리를 낸다.

이 소리는 작은 짐승이나 벌레 등 못 생명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수행자의 조심성과 자비심의 표현이다. 오비이락의 우연조차 피하려는 방편의 하나이면서 못 사람의 교시이기도 하다. 도의가 떨어진 요즈음처럼 삭막한 세상에 허덕이다 보니 사소한 시비 끝에 원한에 쌓인 악연으로 살인, 방화, 강도 등 날로 지능적인 수법으로 흉악범이 날뛰는 살벌한 사회상을 보노라면 남을 용서하고 배려하는 참다운 사람이 매마른 생활상을 한 없이 원망하기도 한다.

내가 아무리 정당하고 떳떳하다고 해도 한번 다른 사람의 의심을 받게 되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다. 하물며 자기의 입으로 말하고 글로 남겨 명확한 증거가 남은 일은 비교할 바도 아니다. 나에게 닥친 나쁜 일에는 알거나 모르거나 무엇이든 원인이 있다. 혹시라도 분노와 욕심에 눈이 어두워 졌을 때 내게 “참으라”고 말하는 진실한 사랑이 담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로 지혜의 눈이 열린 도인이 아닌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中央宗親會 常任 副會長  
金 相 容

## 김수연 부회장의 출판물을 축하합니다.

- 순천김씨 중앙종친회 -



꽃 같은 자식을 먼저 보내고 아내마저 떠나보냈다  
그러나 더 위대한 사랑을 얻은 한 남자 이야기  
세상을 향해... 책 한 권을 나누는 것...  
그것은... 하늘로 떠나보낸... 내 아이와의 굳은 약속이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삶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 내생에 단 한번의 약속

김수연 산문집  
첫은 도서출판사는 사랑을 내

이 책은 식막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위로이다  
또한 사람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궁정이 살아 있다  
저자의 삶은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해 보이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나누는 삶을 사는 그에게서 우리는 여전히 견제한 희망을 발견한다

\*\*\* 우의 마흔시, 시간과 고인의 고비 고비에서, 오하리 더 담고 더 내어 줄수록, 불행은 축복으로 바뀐 시간, 김수연, 그 이름은 더 이상 명사처럼 가 아득히, 나누다, 사랑하리라, 사는 불꽃같은 동서(東書)이다. -서문은 소설가\*\*\*  
\*\*\*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랑의 김수연 대표는 천사(天使)이다. 고별회를 산경을 바라 만나심을 올리기가 하는 산은 마음, 아이들과 별개로 두세 시간을 달래며, 정처럼 나타나는 낙도의 어린이들에게, 권과 사랑이 보성(보성) 담긴 도서관을 선물하는 헌신 속의 천사. -최희영 (유령) 대표\*\*\*

www.mindong.com 문이당 TEL: 02-8741-6111 FAX: 02-8741-6112

NAVER 내생에, 약속

### 동 정

김중용(金重溶) 이사  
성균관 유도회  
구미(鳩尾) 지회장 피선

본회 중용이사께서는 2008년 4월 14일부로 성균관 유도회의 구미(鳩尾) 지회장으로 피선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지회장께서는 앞으로 구미지역에서 유교문화의 진작과 국민예절의 생활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겠다고 큰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 오복(五福)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듣는 인사(人事)말이 바로 복(福) 많이 받으라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인사할 때는 상대방을 고려한 어법에 맞게 적절한 표현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과연 복이란 행복(幸福)의 근원(根源)이라고 여겨지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복과 행복을 타고 났을 것이다. 복(福)을 주는데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복(福)은 오복(五福)을 말하는 것으로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효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을 말한다.

첫째 : 수(壽)는 건강(健康)하고 오래 사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해가 갈수록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 이제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수준에 와있다.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77.5세이며 여자는 남자보다 7년 더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統計廳)이 2005년 12월 20일 발표한 2003년 생명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03년 사망(死亡) 확률이 보건 환경 변화가 없을 경우 그해에 출생한 어린이는 기대 수명을 지칭하는 평균 수명은 남자 73.8세 여자 80.8세로 나타나 있다. 1년전에 비해 남자는 0.49세 여자는 0.38세 늘어난 것이다.

여자 평균 수명은 경제 개발 협력 개발기구(OECD)내 평균치인 80.6세를 처음으로 웃돌았다. 반면 남자 평균 수명은 OECD 국가 30개국 회원국 중 24위에 있다. 2003년 출생아(出生兒) 80세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남자는 39.30% 여자가 63.12%로 10년전 보다 각각 12.46%와 11.24%가 상승해 우리나라도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참고로 두보(杜甫)의 시(詩) 한편을 소개 해 본다.  
 朝回日日典春衣(조회일일전춘의) - 조정에서 나오면 봄 옷 잡혀 놓고  
 每江頭盡醉歸(매일강두진취귀) - 매일 강가에서 취하여 돌아오네  
 酒債尋常行處有(주채심상행처유) - 가는 곳마다 외상 술 빚 있지만  
 人生七十古來稀(인생칠십고래희) - 인생 칠십 살기 예부터 드문 일  
 穿希峽蝶深見(천희협첩심심견) - 호랑나비 꽃 속에 깊은 꿀 빨고  
 點水蜻蜓館館飛(점수정정관관비) - 물위 점찍는 듯 잠자리 한쌍  
 傳觀風光共流轉(전오풍광공유전) - 세상 모든 것은 변하여 가는 것  
 暫時相賞實相違(잠시상상막상위) - 잠시나마 서로서로 어울려 보세  
 인생칠십 고래희란 글이 두보의 곡강시(曲江詩)에 있는데 사람이 칠십년을 살기란 아주 드문 일임을 읊고 있다. 아주 먼 옛날이야 기이고 지금은 70을 못 채우면 평균 수명에서 7년이나 모자라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이처럼 연장 된 것이 타고난 운명(運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전적요인, 생활수준의 향상, 본인의 건강관리, 의학기술의 발전 등이 작용하여 수명(壽命)이 연장되었다고 본다.

둘째 : 부(富)는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 것일까?  
 오늘날 부(富)를 이루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복권(福券)의 당첨 같은 운(運)으로 오는 일은 드문 일이고 조상으로부터 재산의

상속으로 얻는 부, 자기의 소유지(所有地)가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됨으로서 우연히 얻어지는 부. 또한 자신의 근면하고 성실하며 검약하는 등의 실생활에 의하여 축적되는 부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부가 이루어지면 생활이 넉넉하고 남을 도울 수도 있게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투기(投機)나 수뢰(收賂)또는 사기(詐欺)등의 부정(不正)한 방법에 의하여 마련되는 부도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는 복(福)이라는 범주에 들수 없을 것이니 자기 살아생전 자책(自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후손(后孫)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니 이 어찌 복이라 할 수 있는가. 복이란 자신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이어야 하는데 자신이나 후손에게까지 괴롭고 불안함을 끼치게 하니 어찌 복이라 하겠는가.

셋째 : 강녕(康寧)은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이다. 건강은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 복합 요인이 잘 갖춰줘야 가능하고 마음 평정 상태(寧)는 균형감각을 갖고 분수에 맞게 살면 가능하다고 본다. 살아있는 동안 걱정이 없을 수 없겠지만 걱정의 40%는 현실로 일어나지 않으며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사소한 고민이고 4%는 자신의 능력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란 말처럼 걱정을 한다고 해결 되는 것도 아닌 만큼 항상 마음이 너그럽고 대범하고 여유 있게 생각(生覺)하고 살면 걱정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넷째 : 유효덕(攸好德)이란 무엇인가?  
 도덕적(道德的)삶, 남으로부터 존경(尊敬)받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할바를 최선을 다해 실천(實踐)하려고 하는 생활을 말한다. 요즘 유행어로 풀어 보면 몸짱, 열짱이 아닌 마음짱이라는 뜻이다. 착한사람은 법(法)없어도 살 사람,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 군림하지 않은 사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유효덕을 갖춘 사람이 아니겠는가!

다섯째 : 고종명(考終命)은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음을 말한다. 나이든 사람이 바라는 한결같은 소망이 아니겠는가. 잠자듯이 어느날 갑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까지 안고 저 세상(世上)으로 가는 것이야 말로 진짜 복중에 복이 아닌가. 80세가 넘으면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같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몇 살이건 상관없이 건강하게 살아야 사는 것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사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작으나마 도움을 주고 살아야 유효덕(攸好德)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마지막 소망인데 이 간절한 소망도 결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주위에서 얼마 듣지 보고 있지 않는가. 심한 경우 식물인간으로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오르내리는가 하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어가는 딱한 경우도 있고 자식을 앞세우는 경우 또는 노구(老耩)를 감당 하지 못해 고통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죽음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말로 치부 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인간(人間)은 스스로 복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여겨진다. 죽을 때 까지 복(福)되고 행복(幸福)하게 살다 가는 것이 누구나 소망(所望)일 것이다.

中央宗親會 副會長, 翊贊公 16代孫 金夏淵



# 오늘의 追想

-해변에서 띄우는 편지-

바닷물이 철썉 거리고 일렁이는 푸른 바다를 보면 내륙에서 사는 이들은 더없이 시원스럽고 상쾌해집니다. 저멀리 수평선과 하늘이 맞닿는 것은 보노라면 끝없이 가보고 싶은 욕망이 저절로 솟구치지요.

아~ 희망이 넘치는 바다. 갈매기 나르고, 큰배, 작은배가 분주히 떠다니는 바다는 모두의 마음을 벅차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수녀이 해인 시인은 그의 시 아침바다에서 『금빛 번쩍이는 욕망의 비늘 털고

당신께 가겠습니다. 밤새 침몰했던 죽음들이 흰거품 물고 일어서는 부활의 바다 (종락) 수평선을 가르며 춤추는 갈매기로 가겠습니다. 내력(來歷)을 묻지 않고 보체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바다 영원한 흰 포말(泡沫:물거품)로 일어서는 바다로 가겠습니다.』라고 읊었습니다.

해변에 오면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희망을 설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많은 가요 중에서도 만난 사랑과 잃어버린 사랑을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영일만 친구'(최백호 작사, 작곡) 『바닷가에서 오두막 집을 짓고 사는 어릴적 친구 푸른 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다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갈매기 나래 위에 시를 적어 띄우는 젊은날 띄우는 가슴 안고 수평선까지 달려가는 뜻을 높이 올리자 거친 바다를 달리자 영일만 친구야』가 있습니다.

또한 바다의 교향시(김능인 작사, 김정구 노래)에서 『어서 가자 바



# 壬癸稷會 紀蹟碑 除幕式



2008년 6월 14일 오전 11시 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옥봉(권위) 선생을 모신 도계서원에서 14분중 후손 및 안동시장을 비롯한 김광림 국회의원 권인찬 도의원, 심우영 국학진흥원장, 김준식 문화원장, 안동향교전교 및 각 유림대표, 도내 각 문중 주손 및 내빈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우리 순천김문에서는 종식 중앙종친회 회장을 비롯하여 수연 참의 공과 회장, 창연 고문, 명친회 성원 회장을 비롯한 석호 동영종친, 규일, 동수 종친등이 대구에서 참석하였고, 동식 문경종친회장, 동춘 안동종친회장, 태연 부회장을 비롯하여 안동 구담에서 많은 종친들이 참여하여 타문보다 많은 후손이 참여함으로써 제막식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 壬癸會

萬曆41년(光海朝五年, 1613) 癸丑 九月에 壬子 癸丑生의 열한분 우리 先朝들께서 학사산 광흥사에 모여 聚會를 하시어 道義의 뜻을 맺으시고 稷會를 組織하시니 이름을 壬癸稷會라 稱하였다.

좌목을 적으시고 經史를 講論하시며 風流를 詩로 읊으시고 芝蘭의 友誼를 다지시어 이날의 情겨운 모습을 畫工으로 하여금 계획지도를 그리게 하여 한쪽씩 나누어 가지셨던 것이 이 회의 시초가 된다.

8년 뒤(광해13년) 1621년 풍산 삼구정에서 계획을 가졌고 이후에도 후손들이 여러 차례 광흥사에서 계획을 이어 오면서 선조들을 흠모하며 그 유풍을 전승하여 계사를 이어 왔다. 396년세월이 흐르는 동안 변고가 있어 부득이 계획을 행사하지 못한 적도 여러번 있었으나 그럼에도 후손들이 각각 13대에 걸쳐 계사를 이어왔고 1968년 청성 서운 계사로부터 2008년 오늘까지 매년 한번도 빠짐없이 계획을 이어 오고 있다.

### 임계계획도

한쪽씩 나누었을 계획지도는 400여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다수 문중에서 분실되었고, 지금은 교리 진주하씨, 갑천 순흥 안씨, 磨鑑 안동권씨, 봉화 영해박씨 문중의 소장품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2005년 392주년 계획을 우리 순천김씨 문중(안동, 구담)에서 행사 하면서 진주하씨 문중 소장 계획도를 KBS 진품명품에서 1억5천만원이라는 국보급 진귀한 자료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 紀蹟碑 建立

중앙종친회 간사장 봉환(안동, 풍천, 구담)이 경영하고 있는 강정 가든에서 KBS 진품명품 재현방송을 3시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선조들의 유풍을 계승하고 행적을 되살리며 또한 후손들에게 길이 유훈을 전하고자 기적비를 건립하기로 하였다.

각 문중에서 성의껏 기금을 조성하고 장소는 임계계획의 좌장이신 옥봉(권위) 선생을 제향하고 있는 고계서원 옆에 건립기로 하였다.

### 順天金門이 中心

기적비 전면 글씨는 우리 順天人의 자랑인 석호 동연 종친이 임계 계획지 고유문은 우리 順天人의 자랑인 용전 철희 종친이 기적비건립 총책임을 맡은 우리 順天人의 자랑인 행담 동성 종친이 기적비 제막식 진행은 우리 順天人의 자랑인 송호 봉환 종친이

3년여에 걸쳐 이룩한 이번 대사에는 많은 어려움이 곳곳에 있었지만 슬기롭게 잘 이겨내면서 오늘의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이는 오로지 큰 관심과 도움을 주신 중앙종친회 종식회장 종식 회장님 비롯한 수연 종친 창연 종친등 그 외 많은 종친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08년 6월 중앙종친회 간사장 봉환

다로 가자 출렁출렁 물결치는 명사십리 바닷가 안타까운 젊은날의 로맨스를 찾아서 헤이, 어서 가자 어서가 젊은 피가 출렁대는 저 바다는 부른다 저 바다는 부른다. 희망찬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을 자성하는 생업(生念)이 찾아들 때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나는 무슨 목적에서 왜 사는가? 라는 물음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원자물리학자인 이인슈타인 박사는 「나의 세계관」이란 저서에서 과학의 진보로 물질이 풍부해지고 생활이 변했지만 행복해 지는 것이 아니다. 과학은 강한 힘의 수단으로 인간을 살상하고 인간 자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 과학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가. 그 목적을 가르치는 것이 참종교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타(彌陀:부처의 이름)의 서원(誓願)에 우리들의 고뇌(苦惱)의 근원인 무명(無明:세상 번뇌에 사로잡힌 범부 세계의 세계)의 암(闇:사리분별을 잃은 암흑)을 깨부수고 끊임없는 인생의 고해(人生의 苦海)에서 밝고 즐겁게 건널 대선(大船)을 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대비(大悲)의 배를 타면 인생고해의 천파만파(千波萬波)가 반짝이는 밝은 바다 순풍에 돛단배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살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라면 횡집 수족관 속에서 헤엄치는 고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죽음을 기다리는 것 뿐인 삶이라면 가라앉은 죽음의 상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무명(無明)의 암(闇)을 깨버리고 행복에 이르는 기쁨을 감격해 할 장하는 정토(淨土)의 세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독교 신약성서에서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서 보면 돈 많은 의회 의원이지만 답답한 심정에서 예수를 찾아가 대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의원께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한 계명을 지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직도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의 보화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며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란 참으로 어렵고 차리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나가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예수는 말했습니다. 이 뜻은 물질을 공유하고 정신세계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사람의 행위와 결과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에 심은 자는 육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영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서 예수와 율법교사와의 대답에서 강도를 만나 옷을 빼앗기고 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을 여러 지도 계층의 사람들을 보고 피해지나갔는데 천한 계층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극진히 돌보고 상처까지 치료해 준 사람을 들어 너희들도 이와같이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무거운 이야기가 길어진 듯 합니다. 모처럼 피서지에서 지내면서 월산대군의 시조 한 구절에 “무심한 달빛만 심고 빈 배 저어 오노라 매”란 내용을 마음에 담았으면 합니다.

인위적으로만 분별하는 생각을 잠시 멈추어 둔 채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에 여백을 가지라는 뜻인줄 압니다.

무더위에 몸조심 하시고 건강시어서 날마다 새 날을 보람있고 즐겁게 맞이하는 생애가 지속되기를 빌겠습니다.

2008년 7월 31일 동해안에서 전 CBS 대구국장 김봉배 올림



# 제23회 대학생 하계교양강좌를 끝내면서



지난 5월초부터 회장님을 비롯하여 상임 부회장, 간사장 명재어르신과 제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수립하여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뜻대로 잘 수행하지 못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우선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을 잠시나마 저희 종친회에 보내주신 학부형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종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며칠 동안 진행한 학생 교육의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시조묘역 참배후에

입소식 : 김종식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의 훌륭한 일을 이어받아 사회에 훌륭한 일꾼이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개척해 나가는 건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회장(김수연) : 꿈을 가지고 순천김문(順天金門)을 빛내는 사람이 되자. 라고 말씀 하시면서 금일봉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석호(김동영)선생 : 서예가이신 석호어르신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글을 써 주시면서 우리 순천김씨 문중의 학생들이 날로 발전할 수 있기를 거듭 소원하시는 마음으로 힘찬 글을 써주셨습니다.

· 저녁식사 후

학생들 간담회는 간단히 끝내고 자유시간을 가진 후에 취침.

둘째날에는 작가(作家) 한승연 선생의 강의를 예정되어 있었지만 개인 사정상 서울에서 내려오지 못하여 강사(講師)님이 김광연 선생님이로 변경되었습니다. 김광연 선생님은 저의 친 형님으로서 한양대학 원자력공학과 출신으로 오랫동안 후학을 양성해오신 분이로서, 현대 과학에 비추어 음양오행의 원리를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학생들에게 교육시키셨으며, 학부형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해주셨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 조금 지나서 순천대학 사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는 최인선교수님께서 우리 시조이신 김충(金攄)어르신에 대한 말씀을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 교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순천지역은 삼국시대 이전에는 마한에 해당.

· 순천은 감평군(歙平君), 사(沙平), 삼평(歙平), 무평(武平)등으로 불리다가 서기 940년경에 승평(昇平)으로 바뀜. 그 후 12C초 승주(昇州)로 불리어 오다가 1310년경에 순천(順天)으로 바뀌었는데 순천으로 바뀌어진 이유(理由)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김충어르신은 순천지역의 호족(豪族 : Powerfull Family)으로서 견훤의 오른팔 역할을 해 왔으며 훗날에 성황신(城隍神)으로 추대받기까지 국가적으로 거룩하신 인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시조 할아버님의 자랑스런 위업을 잘 이어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도 더욱 성실한 자세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김춘희 어르신께서 사례(四禮)에 대해 열(熱)과 정성(精誠)을 다하여 실제로 시범을 보이시면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종친께서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셨을 때 조상님의 은덕으로 무난하게 해결되어 새로운

삶을 찾게 되는 중요한 말씀을 학생들이 침묵속에서 경청하는 것을 보고 무척 감명 받았습니다. 춘희어르신은 목소리도 크지만, 솔직 담백하게 꾸밈없이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려는 태도가 대단히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식사를 끝내고 김명재(金明在)어르신께서 족보보는 법을 학생들에게 강의해 주셨습니다. 85세의 고령(高齡)이십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시려는 강한 의지(意志)를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명재어르신께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손수 하계교양강좌 교본을 집필하셨으며 현조약사(顯祖略史), 족보(族譜)이야기, 사례(四禮)를 말씀하게 정리하시어 비교적 간략하게 잘 만들어 내신 할아버지의 정성(精誠)은 우리 조상님들이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매일같이 안양에서 약 2시간 동안 차를 타시고 종친회 사무실에 출퇴근 하시어 여러 가지 어려운 종사(宗事)를 무리없이 처리하시는 명재 어르신은 우리들의 삶의 귀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더욱 건강하십시오.

명재 어르신의 강의가 오후 5시 20분쯤 끝나서 학생들에게 과일, 수박을 먹이면서 감상문을 쓰도록 했습니다. 안동쪽에서 온 학생 4명, 서울쪽에서 온 학생 3명이었는데, 안동학생들은 김봉환 간사님께서 직접 학생들을 안전하게 비록 야간이지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서울 학생들은 하룻밤을 재우고 다음날 아침에 우리들(어른)과 함께 가려고 했지만, 전체적인 의견(意見)이 오늘 저녁에 곧바로 귀가(歸家)토록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을 받아 들어 서울 학생들은 상용부회장의 안내로 광주까지 가서 고속버스편으로 귀가하게 했습니다. 우리들 어른 4명(김명재어르신, 김상인어르신, 김광연형님, 김승연 본인)은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하룻밤을 지낸 후 8월 6일 순천역(오전 9시 45분)에서 내년에는 더욱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서울을 향해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8월 7일), 명재어르신과 저는 회장님께 그 동안의 경과보고를 드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비록 적은 수의 학생들이 갔지만, 끊임 없는 정성으로 학생들에게 조상에 대한 교육을 하시려는 위대한 사명감을 끝까지 펼치시는 중앙종친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육의 효과는 후대(后代)에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모든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승연 주임교수

## 헌 성 금

종식 회장	1,000,000원	종숙 종친	금일봉
상용 부회장	500,000원	동훈 안동종친회장	100,000원
수연 부회장	600,000원	상운 종친	50,000원
창연 고문	200,000원	인섭 부산종친회장	50,000원
봉환 간사	300,000원	명재 종친	30,000원

## 제 23기 대학생 교양강좌 감상문

김우준 (울지대학교)

아버지께서 한달전부터 이곳에 가라고 권유하셔서 오기는 했지만 정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모두들 어색하고 서먹하고 했지만 2박 3일을 같이 지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친하게 지내서 정말 좋았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조 할아버지 산소에 와서 묘를 직접 보니 가슴이 찡하였습니다. 22년 동안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내가 참괴했습니다. 첫날 석호 '김동영' 선생님의 이벤트를 보고 나서 또한번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 종이에 그린 멋진 글씨를 쓸 수 있는지 정말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또 찍고 제 평생 동안 기억에 꼭 남을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김수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번 감동받고 '독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쳤습니다. 평소 책도 많이 읽지 않던 내가 얼마나 찢리던지... 무로도서관을 1년에 50여 곳이나 만들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나도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다시한번 하게 되었고, 인생에서 돈이 전부라는 생각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도 깨우치고 갔습니다. 첫날밤 하루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과 다음에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또 참가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 30분 기상을 했습니다. 졸립지만 꼭 참고 일어나 시조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내려와서 아침밥을 먹고(여기 와서 먹는 밥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밥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김광연' 선생님의 '음양오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신기하고 그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음과 양으로 되어있다. 전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 = 몸(음)+정신(양) 등 음양오행에 관한 개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순천대학교 '최인선' 교수님께서 오셔서 순천에 대한 역사를 말해주셔서 제가 알지 못했던 '시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나마 커서 꼭 해야겠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역사적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과 유적은 찾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춘희' 선생님께서 '사례'에 관한 이야기, 일가와 종친의 개념 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호칭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잘 배워서 제 가족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절하는 법에서 장례식장에서 절할 때는 손이 반대로 가야한다는 것 등을 정말 자세하게 배우고 호칭과 명칭을 잘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상님을 잘 섬겨야 은덕이 온다"라는 말씀 정말 가슴속에 새기고 갑니다.

2박 3일 동안 조상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오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꼭 참가 하겠습니다.

김명선(카톨릭상지대학교)

나에게는 언니가 있는데, 저번해에 언니가 순천김씨 하계교양강좌라는 곳을 아빠의 권유로 다녀왔다. 그리고 언니가 다녀와서 이야기를 해 주는데, 왠지 재미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도 대학생이 되면 한번 가볼까? 했었는데 이번에 아빠의 권유로 왔었다. 안동에서 나가지 포함해서 4명이 갔다.

안동에서 8시 30분쯤 출발해서 순천에 4시 정도에 도착했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애들도 다 와서 시조께 인사드리러 갔다. 무덤이 높은 곳에 있었다. 무덤이 상당히 컸다. 그리고 순천김씨인 석호 김동영께서 사람만한 붓으로 붓글씨를 썼다. 정말 멋있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강의를 했다. 정말 굉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조 무덤에 갔다. 아침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왠지 더 숨이 찼다. 인사를 드리고 돌아와서 강의를 들었다. 김광연 교수님께서 음양오행설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설명해주셨다. 그리고 순천대학교에서 오신 최인선 교수님께서 역사에 대해 가르쳐주셨다. 그리고 김춘희선생님께서 사례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인감을 함부로 막 쓰지 말라고 하셨다. 가슴 속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김명재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족보 공부도 너무 재미있었다. 이번 순천김씨 하계교양강좌에 잘 왔던 것 같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내가 아는 순천김씨 아이들에게 이곳을 꼭 권해주고 싶다.



#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08년 5월부터 ~ 2008년 8월 30일까지

## 부회장

- 1. 김하연 2008. 5. 26 경상북도 안동시

## 고문

- 1. 김재준 2008. 2. 29 서울특별시 강남구
- 2. 김병한 2008. 6. 9 경상북도 안동시
- 3. 김상우 2008. 2. 29 경기도 용인시

## 대의원

- 1. 김순환 2008. 5. 23 대전광역시 동구
- 2. 김동원 2008. 5. 28 경기도 파주시
- 3. 김애연 2008. 5. 28 경기도 고양시
- 4. 김동선 2008. 5. 28 경기도 고양시
- 5. 김석연 2008. 5. 28 경기도 안산시
- 6. 김상운 2008. 5. 26 전라남도 해남군
- 7. 김순원 2008. 6. 10 경기도 군포시

## 운영위원

- 1. 김동연(석호) 2008. 5. 30 대구광역시 달서구
- 2. 김정수 2008. 6. 2 경기도 가평군
- 3. 김광재 2008. 6.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4. 김형근 2008. 8. 5 경기도 고양시

## 이사

- 1. 김도균 2008. 2. 23 강원도 원주시
- 2. 김광원 2008. 5. 26 전라남도 담양읍
- 3. 김동학 2008. 5. 28 경기도 고양시
- 4. 김상은 2008. 5. 28 경기도 고양시
- 5. 김동욱 2008. 5. 28 경기도 고양시
- 6. 김서연 2008. 5. 28 경기도 고양시
- 7. 김중용 2008. 5. 30 경상북도 구미시
- 8. 김상범 2008. 5. 29 인천광역시 부평구
- 9. 김현희 2008. 5. 28 전라남도 해남읍
- 10. 김상우 2008. 6. 2 경기도 용인시

## 간사

- 1. 김광홍 2008. 5. 23 서울특별시 은평구

## 회원

- 1. 김형만 2008. 4.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 2. 김일환 2008. 4.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 3. 김지현 2008. 5. 16 경상북도 문경시
- 4. 김경주 2008. 5. 23 경기도 고양시
- 5. 김중건 2008. 2. 23 경기도 광명시
- 6. 김종탁 2008. 5.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 7. 김사연 2008. 5. 26 서울특별시 구로구
- 8. 김만형 2008. 5.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9. 김호철 2008. 5. 26 서울특별시 도봉구
- 10. 김동필 2008. 5. 26 서울특별시 서초구
- 11. 김용열 2008. 5. 26 서울특별시 성동구
- 12. 김용환 2008. 5.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 13. 김규연 2008. 5. 26 경기도 고양시
- 14. 김병남 2008. 5. 26 경기도 김포시
- 15. 김일재 2008. 5. 26 경기도 이천시
- 16. 김재석 2008. 5. 26 경기도 수원시
- 17. 김한희 2008. 5. 26 경기도 과천시
- 18. 김동주 2008. 5.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 김동호 2008. 5. 26 충청북도 보은군
- 20. 김현만 2008. 서울특별시 성북구
- 21. 김진주 2008. 5. 26 전라남도 광주시
- 22. 김 환 2008. 5. 26 전라남도 목포시

- 23. 김인식 2008. 5. 26 경기도 용인시
- 24. 김양준 2008. 5. 26 부산광역시 남구
- 25. 김종두 2008. 5. 26 전라남도 여수시
- 26. 김지연 2008. 5. 26 경상북도 안동시
- 27. 김상일 2008. 5. 27 경기도 고양시
- 28. 김상준 2008. 5. 27 인천광역시 서구
- 29. 김영근 2008. 5. 27 서울특별시 영천구
- 30. 김수호 2008. 5.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 31. 김교열 2008. 5. 27 서울특별시 중랑구
- 32. 김갑연 2008. 5. 26 전라북도 진안군
- 33. 김연만 2008. 5. 26 경기도 안성시
- 34. 김영렬 2008. 5. 26 강원도 횡성군
- 35. 김연만 2008. 5. 26 충청북도 청원군
- 36. 김옥계 2008. 5. 26 경상남도 하동읍
- 37. 김상용 2008. 5. 26 전라남도 해남군
- 38. 김윤배 2008. 5. 26 전라남도 해남군
- 39. 김기수 2008. 5. 27 경기도 남양주시
- 40. 김동경 2008. 5. 27 대구광역시 달서구
- 41. 김기현 2008. 5. 27 광주광역시 북구
- 42. 김재수 2008. 5. 27 전주시 완산구
- 43. 김준희 2008. 5. 27 전라북도 임실군
- 44. 김태석 2008. 5. 28 충청남도 보령시
- 45. 김근보 2008. 5. 28 전라남도 여수시
- 46. 김동현 2008. 5. 29 경기도 시흥시
- 47. 김경원 2008. 5. 29 서울특별시 도봉구
- 48. 김승희 2008. 5. 29 서울특별시 성북구
- 50. 김순수 2008. 5. 29 서울특별시 도봉구
- 51. 김진출 2008. 5. 29 경기도 안산시
- 52. 김동언 2008. 5. 28 전라북도 임실군
- 53. 김창열 2008. 5. 29 경기도 용인시
- 54. 김동욱 2008. 5. 29 부산광역시 연제군
- 55. 김명석 2008. 5. 2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56. 김원석 2008. 5. 29 광주광역시 북구
- 57. 김병도 2008. 5. 30 인천광역시 서구
- 58. 김동기 2008. 5. 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59. 김동국 2008. 5. 30 서울특별시 은평구
- 60. 김인희 2008. 5. 30 서울특별시 강서구
- 61. 김원희 2008. 5. 30 경기도 남양주시
- 62. 김백원 2008. 5. 30 인천광역시 서구
- 63. 김동원 2008. 5. 30 서울특별시 도봉구
- 64. 김만조 2008. 5. 29 대구광역시 서구
- 65. 김동직 2008. 6. 2 서울특별시 양천구
- 66. 김동규 2008. 6. 2 경기도 성남시
- 67. 김덕흠 2008. 6. 2 경기도 의정부시
- 68. 김인홍 2008. 6. 2 경상북도 영주시
- 69. 김중해 2008. 5. 30 경상북도 안동시
- 70. 김갑점 2008. 6. 3 부산광역시 서구
- 71. 김형호 2008. 6. 4 경기도 안산시
- 72. 김상휴 2008. 6. 5 경기도 안양시
- 73. 김승환 2008. 6. 4 경상북도 상주시
- 74. 김동한 2008. 6. 9 경기도 안산시
- 75. 김동식 2008. 6. 9 서울특별시 광진구
- 76. 김윤근 2008. 6. 9 충청남도 예산군
- 77. 김찬정 2008. 6. 5 충청남도 부여군
- 78. 김영일 2008. 6. 9 전라북도 정읍시
- 79. 김상원 2008. 6. 10 전라남도 담양군
- 80. 김동신 2008. 6. 10 경기도 용인시
- 81. 김치인 2008. 6. 13 강원도 원주시
- 82. 김명환 2008. 6.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 83. 김영관 2008. 6. 10 충청북도 괴산군
- 84. 김광순 2008. 6. 11 전라남도 여수시
- 85. 김외학 2008. 6. 12 대구광역시 동구

- 86. 김천연 2008. 6. 12 울산광역시 중구
- 87. 김동수 2008. 6. 13 경상북도 안동시
- 88. 김상열 2008. 6. 10 울산광역시 남구
- 89. 김 명 2008. 6. 18 경기도 양주시
- 90. 김석희 2008. 6. 20 대구광역시 남구
- 91. 김동철 2008. 6. 23 대구광역시 북구
- 92. 김태언 2008. 6. 24 서울특별시 성북구
- 93. 김주락 2008. 6. 24 울산광역시 중구
- 94. 김동삼 2008. 6. 25 경기도 하남시
- 95. 김정남 2008. 6. 25 인천광역시 부평구
- 96. 김학이 2008. 6. 24 경상북도 의성군
- 97. 김인성 2008. 6. 26 경기도 의정부시
- 98. 김태희 2008. 6. 25 전라남도 순천시
- 99. 김정희 2008. 6. 27 서울특별시 강서구
- 100. 김기남 2008. 6.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 101. 김상진 2008. 6.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 102. 김동석 2008. 6. 27 경상북도 성주
- 103. 김동규 2008. 7. 1 서울특별시 성동구
- 104. 김연수 2008. 7. 7 부산광역시 진구
- 105. 김창길 2008. 7. 10 전라북도 부안군
- 106. 김왕희 2008. 7. 17 울산광역시 남구
- 107. 김흥인 2008. 7. 30 대구광역시 동구
- 108. 김흥연 2008. 7. 31 경기도 성남시

## 무명인

- 1. 2008년 4월 26일 대구 노원동 지점
- 2. 2008년 5월 26일 벽제지점/내유리
- 3. 2008년 5월 27일 우리은행/연희동지점
- 4. 2008년 5월 27일 포곡농협/전대지점
- 5. 2008년 5월 28일 농협중앙/부산강서지점
- 6. 2008년 5월 30일 한국씨티은행/역삼동지점
- 7. 2008년 5월 30일 수협/서귀포중문지점
- 8. 2008년 6월 2일 농협/오릉역지점
- 9. 2008년 6월 3일 하나은행/광명지점
- 10. 2008년 6월 17일 해남농협
- 11. 2008년 6월 18일 수원화서우체국
- 12. 2008년 6월 30일 우리은행/성대수원
- 13. 2005년 6월 27일 농협/서문경농암지점
- 14. 2008년 6월 30일 농협/포곡전대
- 15. 2008년 7월 21일 우체국/구미원평

## 합동 시제 초청

해남 : 남은공손 황산파문중  
 일시 : 2008. 11. 9 (음10월 12일 일요일)  
 장소 : 황산면 춘정리 은덕재

위와 같이 2008 무자년 합동시제에 귀하와 귀하의 가족을 초청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할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일가형제들과 같이 만나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

위 문 임 : 김 종 욱  
 춘정대표 : 김 상 목  
 연당대표 : 김 한 경,  
 서울대표 : 김 상 용 일동 올림



# 매일 새로운 내일을 꿈꾸다

세계를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꿈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더 큰 세상에서 글로벌 한화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